

# 국민의힘 '호남 구애' 결실 맺을까

### 당원 급증·두자릿수 지지율 대선 토론회 호남에서 시작 내년 대선·지선서 성과 주목

지난해부터 '서진 정책'을 추진하며 호남에 공을 들여왔던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호남을 향한 '서진 정책'에 공을 들여왔다. 보수 정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김 전 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했고,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취임하거나 전국 순회 행사를 할 때마다 호남을 첫 출발지로 선택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고질적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넘어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만들겠다고면서 지난해 '호남 동행'을 선언하고 소속 의원 48명에게 '제2의 호남 지역구'를 배정하고 호남에 대한 꾸준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정치적 불모지'인 호

남으로의 외연 확장을 통해 '도로 영남당'이라는 당 이미지 탈피를 위한 의지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11일 대선 후보 본경선 합동토론회 첫 출발지로 광주를 선택한 점도 이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뒷밭'인 영남을 넘어 당의 지역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보수 불모지'에서부터 경선 흥행 분위기를 한껏 띄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기에 당 지도부까지 이날 대거 광주로 내려와 5·18 국립묘지 참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것도 호남 공략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지로 엿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의 적극적인 호남 구애가 당원 증가와 지지율 상승이라는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4개월 간 호남에서는 1만명이 새로 입당해 직전 4개월보다 8배 넘게 당원이 늘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의 입당과 관심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에서 "호남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1만 5000여명으로 지난 2월(2144명)의 7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당 지지율도 두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

다. MBN이 알앤씨에 의뢰해 지난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이 13.0%를 기록해 56.4%인 더불어민주당의 뒤를 이었다. 뉴스타모토가 미디어타모토에 의뢰해 5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16.5%(민주당 55.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대선·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사실상 와해된 호남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특히 불모지인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달성해 정권교체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호남 지지율 목표는 30%지만, 15% 이상의 지지율만 나와도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10% 지지율이 목표였던 호남에서 15% 이상을 바라볼 정도로 상향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면 대선에서 항상 이겼다"며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로 정권교체를 이뤄낼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열린 토론회 벌이는 아권 후보들 국민의힘 광주·전남·전북 합동토론회가 11일 오후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4인의 후보들이 열린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윤석열 "호남, 4차산업 중심지로 키울 것"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를 불어려면 당 자체가 민주화되어야 하는데, 특정 세력이 당을 장악해서 나머지 뜻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기를 못 펴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을 상대해봤는데, 참 문제가 많은 당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턱걸이 과반'에 대해 "민주당 당원들이 당의 기득권 세력이 이렇게 몰아갈 때 이제 당이 몰락하겠구나 생각한 것 같다"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것(대장동 의혹)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어제 민주당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득표 상황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또 호남에 대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4차 산업이 구축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호남이 국가산업면에서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남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대선 후보들과 함께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광주·전남 선거 캠프 출범식,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광주·전남·전북 합동 토론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최권일 기자 cki@

## 정의당 오늘 결선 투표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가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둔 11일 나란히 '이재명 대항마'를 자임했다.

심 의원과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전남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불안하다'며 각을 세웠다. 심 의원은 "불안한(후보) 확정으로, 간신히 과반을 넘었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지금까지처럼 대중 열버리는 태도로는 대선 가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여대 가장 불안한 대선 정국"이라며 "유력 주자들을 놓고 도대체 누가 감옥을 가는 거냐, 대선이 끝나면 이 불안이 해소되는 거냐 하는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예술의 전당, 250만명 빅데이터 민간기업 넘겨

### 이병훈 국회의원

예술의전당의 250만 관람객 빅데이터를 민간업체에 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부) 국회의원이 예술의전당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 체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술의전당은 한 해 250만 가까운 관람객들의 고객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의전당을 찾은 한 해 평균 관람객은 250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은 이들 관람객에 대한 연령, 선호 프로그램, 공연에 대한 반응 등 데이터에 대한 수집·해석, 일반에 대한 공개 등 빅데이터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위탁계약을 통해 입장권과 관련한 예매뿐 아니라 현장발권, 고객 상담 등의 고객편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인터파크에 위탁하고 있다.

## SRT 호남선 지연 횡수 급증...역대 최다 갱신

### 조오섭 국회의원

수서~광주송정~목포간 호남선의 열차 지연 횡수가 급증하면서 열차지연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간) 국회의원이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T 열차도착지연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68건, 2018년 158건, 2019년 66건, 2020년 81건, 2021년 8월기준 127건 등 총506건에 달한다.

이 중 호남선의 경우 2016년 12월에 개통한 것



를 제외하면 2017년 12건에서 2021년 8월까지 4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같은 기간 56건에서 83건으로 1.4배 증가한 경부선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컸다. 중착역 기준 전체열차 평균 지연시간은 2017년 1분 57초, 2018년 1분41초, 2019년 1분47초, 2020년 2분, 2021년 2분19초로 지난해부터 2분대를 돌파해 증가하는 추세다.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절반이 업무과실

### 민형배 국회의원

올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업무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 따른 유출이 많아진 것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울)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업무과



실이 8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해킹에 따른 유출은 6만4000건으로 44.4%다.

지난 2018년, 전체 유출 6만9000건 중 업무과실은 1만 8000건으로 26.1%였다. 2019년에는 5만2000건 중 28.8%인 1만5000건이 업무과실 때문이었다. 작년에도 7만4000건 중 29.7%인 2만2000건이 업무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 'MZ세대' 내에서도 자산격차 심화

### 김희재 국회의원

자산가격 상승으로 'MZ세대' 내에서도 자산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자산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울) 국회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MZ세대(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84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200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기준 MZ세대 내 자산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자산은 전년 대비 64만원(2.6%) 증가한 247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인 자산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7044만원으로 전년 대비 7031만원(8.8%) 증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  |
|-------|--|
| 근무 시간 | 주간 : 09:00 ~ 18:00<br>야간 : 19:00 ~ 04:00<br>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
| 급여 조건 | 주간 : 192만 + @<br>야간 : 240만 + @<br>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
| 통근 버스 | 광주 전 지역 운행   |
| 복리 후생 |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
| 업무    |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허브(분류, 상하차)                                   |
| 지원 자격 | 성별 및 학력 무관<br>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br>초보 가능, 주부 가능, 동반 입사 가능 |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회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상가매매 (상무지구)**

-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
-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
-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